

화룡시 남평진 흰거위산업 향촌 진흥 이끈다

로과촌의 성공적인 시범하에 련건촌들 분분히 흰거위산업에 가입



2024년, 화룡시 남평진은 '하나의 부화중심, 다주제 사육, 완전 산업사

슬' 발전 모식으로 흰거위(雪鵞) 사육업의 전환 발전과 업그레이드를 적

극 추진해왔다.

과학기술형 거위 부화 및 사육 산업을 형성했다. 1,000 만원을 투입하여 로과촌에 표준화 거위부화장을 건립했다. 30 대의 부화기와 5 대의 저장기를 투입하고 4 개의 부화장, 9 개의 탈온막, 22 개의 사육 간이막을 건설하는 등 일련의 부화 및 사육 체계를 형성하였다. 과학적인 관리와 선진기술의 응용을 통해 로과촌은 올해 13 만마리의 흰거위를 부화 판매하였고 5 만마리 규모의 저장량을 보유해 17 명 촌민의 취업을 이끌었으며 촌집체 수입 70 만원을 늘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련동 발전 구도를 형성하였다. 로과촌의 성공적인 시범하에 련건촌(联建村)들인 고령촌, 고산촌, 류동

촌과 남평촌이 분분히 흰거위 사육 산업에 가입하여 지역 련동의 발전 구도를 형성하였으며 따라서 여러 촌이 거위산업 발전 수익 배당금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련건촌들은 도합 3 만마리에 달하는 흰거위를 사육하였는데 올해 각 촌들에서 집체경제수입 총 75 만원을 늘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평진은 흰거위산업사슬의 건설을 계속 심화하고 전자상거래 판매와 콜드체인 물류 등 경로를 적극 확대하여 흰거위 제품이 순조롭게 전국 각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으며 '번식—사육—도축—판매'의 완전 폐쇄식 산업사슬을 부단히 최적화하여 '흰거위' 브랜드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 화룡시당위 선전부

신선한 인삼 슈퍼마켓에 진입

백산시 무송현에서는 신선한 인삼의 슈퍼마켓 진입 판매 모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내 여러 대형 슈퍼마켓 식품 코너에서 팔리고 있다.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무송의 량질의 신선한 인삼은 모두 5년 삼령의 인삼으로서 원산지 흙이 묻은 대로 이끼와 함께 동봉되었다. 포장에는 유기인증서 번호와 제품의 속성, 저장 조건 및 하루 식용량에 대한 건의 등이 상세히 밝혀져있다.

무송인삼문화연구원 명예회장 왕덕부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날 사람들은 마른 인삼을 위주로 식용했다. 그것은 신선한 인삼은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신선한 대로 팔지 않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신선도 유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양생조류

에서 인삼 등 약식동원 식재료가 많이 주목받는다. 가을과 겨울에 인삼을 먹으면 우리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몸에 아주 좋으며 왕덕부는 신선한 인삼의 식용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고 소개한다. "물에 끓여서 인삼물을 마시거나 삼계탕을 하거나 썰어서 꿀을 무쳐 먹거나 밤을 지을 때 전기밥솥에 한뿌리씩 넣어도 된다."

무송현상무국 국장 진함은 "중국 인삼의 고향"으로 불리우는 무송현은 풍부한 인삼 제품을 내놓고 있다. 올해이래 녹색유기인삼의 슈퍼마켓 진입을 적극 추동해왔는데 이는 인삼의 판매 경로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인삼이 더욱 많은 백성들의 식탁에 오르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인민넷



택배량 처음 1,500 억건 돌파... 매인당 100 건!

국가우정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17일까지 우리 나라의 택배 업무는 처음 1,500 억건을 초과했다. 평균 매초에 5,400 여건이 산생했고 일평

균 업무량이 7.29 억을 초과, 평균 매인당 택배물이 100 건을 초과했다.

올해이래 우리 나라 속달시장은 번영과 활성화를 유지하고 발전의 질적

효과가 부단히 제고되었으며 산업 승격이 가속화돼 생산소비를 견인함과 동시에 경제운행 효율을 더욱 높이고 실물경제 순환을 원활히 하는 데 중요

한 기여를 하였다.

거시적인 유리한 정책의 구동력이 크다. 여러 부문 및 여러 지역에서 내수확대 지원 정책을 발표하여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의 보상교환 판매를 실시하는 것을 계기로 소비장면을 부단히 풍부히 하고 시장을 활성화시켜 지속적으로 좋은 발전 추세를 공고히 함으로써 속달업무량의 강력한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날로 완벽해지는 상위설계, 고효율적이고 원활한 써비스 네트워크, 지능과학기술의 광범한 응용에 힘입어 속달 기업들이 기초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무인차, 무인기, 지능 분류 등 선진기술설비를 적극 배치하여 업종 운수 환적 능력이 날로 증강되고 네트워크 체계가 점차 완벽해졌으며 써비스 효율과 품질도 효과적으로 제고되었다. 오늘날 작게는 바느질, 모든 먹거리와 가정용 기구에서 크게는 농기계 부품 등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는 핸드폰에서 구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택배원으로부터 가장 빠른 시간내에 물품을 배달받을 수 있다.

/ 중앙 TV 방송넷



연변, 전 3 분기 신규 납세 관련 경영주체 1 만 3,600 개

전 3분기 연변의 신규 등록 납세 관련 경영주체가 1만 3,600 개에 달해 지난 동기보다 3,000 개 늘어난 가운데 성장률이 27.1%에 달해 지역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다.

"연변의 뜨거운 문화관광시장이 우리들의 창업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신규 등록 창구'에 등록한 후 사업일군으로부터 '춘풍속달' 안내수첩을 받았는데 후속 신고, 령수증 등 업무에 관한 안내가 다 그 안에 있어서 그대로 조작했더니 문제없었다." 신규 등록 주체인 연변평상음식유통회사 경리 김준희의 말이다.

신규 등록 경영주체들이 첫출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 연변에서는 '개업 첫 수업'에서 '납세인 학당'에 의탁해 전문보도를 진행했다. 즉 '정책해독+실제 조작 시연' 형식으로 납세 신고, 사회보험 납부 등 내용에 대해 해설한 동시에 창구 내의 업무 령결을 강화했는데 신규 등록 창구, 녹색통로 개통 등 방식으로 세무 등록, 세금 종류 책정, 령수증 등 관련 업무를 집성하여 일괄처리하고 신청인이 원스톱으로 즉시 알 수 있도록 확보했다.

연변승화상업무역유한회사 책임자 림녀사는 "한번의 학습으로 회사와 관계되는 세금 비용 관련 정책과 업무

처리 절차를 쌍으로 다 장악했다."고 감수를 터놓았다.

동시에 연변에서는 온라인 써비스 직을 설립, 세금 징수(납부) 령결 플랫폼, 세금 기업 위챗동아리를 통해 적시적으로 질의에 응답하고 '춘풍속달' 등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첫 령수증 발급, 첫 신고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제반 경영 발전을 지속 동반해주고 있다. 자료 발급 등으로 세수 정책을 선전하고 중점군체에 적용되는 취업창업 정책에 대해 지도를 진행하며 창업에서 '자금이 적고 경험은 적음' 등 문제에 유익한 건의를 제공해주었으며 세수 정책의 정향 격려 효

과를 발휘하여 창업군체의 창업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꿈을 이루도록 격려하여 시장의 활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주세무국 관계자는 "연변 세무부문은 계속하여 세수 데이터를 잘 사용하여 신규 등록 납세 관련 경영주체의 발전 상황을 추적 분석하고 세금과 비용에 대한 지원 정책을 락착하며 기업에 유리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출범시켜 창업 원가와 경영 위험을 낮추고 내생동력과 경영활동 적극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신규 등록 경영주체가 패속성장,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표했다.

/ 길림일보

우리 성

3 가지 벼품종 일본에서 식미 대상 수상

일전에 발표된 2024 일본벼품질·식미연구회 제 16 회 세미나 및 량질 벼 식미 품평회 결과 우리 성 농업과학원에서 선출한 '길경 596' 3 개 품종이 다 상을 받았다. '길경 575'의 식미가 일본 니가타 히라카미를 제치고 식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길경 830'과 '길경 596'은 식미 '특별 우수상'을 받았다. 우리 성은 이번 품평회에서 입상 개수가 가장 많은 성이다.

2024 일본벼품질식미연구회 제 16 회 세미나 및 량질 벼 식미 품평회는 6 일부터 8 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진행, 일본벼품질식미연구회측에서 중국측 전문가 12 명, 일본측 전문가 11 명을 조직하여 21 개 중국 량질 벼품종에 대해 맹심(盲审) 식으로 식미 품평을 진행했다. 품평 방법은 일

본 식미 시식 표준 방법을 따르고 품종 번호는 일본 사사키회사 식미 품질 감정단이 통일적으로 매기었으며 전문가들은 일본 니가타 월광미를 채점 참조로 하여 각 선별 쌀 견본에 대해 외관, 냄새, 향기, 경도 등 방면의 종합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품평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우리 성의 상기 3 개 수상 품종은 원립형(圓粒形) 형으로서 우리 성의 입쌀 우세 품종이다.

소개에 따르면 우리 성의 량질 식미 품종은 각지의 농업기술부문, 가공판매기업과 량곡 재배 규모호들의 '우선 선택 품종'에 들어 랑질 벼품종에 대한 농업의 공급 구조 개혁의 수요를 한층 더 만족시키고 우리 성 벼산업이 량질화, 브랜드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하게 된다.

/ 길림일보

연변, 올해 농작물 신품종 개발 성과 뚜렷

올해 연변은 농작물 신품종 연구개발에서 새로운 성과가 뚜렷하다.

우리 성에서 년초에 발표한 2024 년 콩 주도 품종 리스트에 연변의 '안육두(雁育豆) 8', '안육두 11'이 선정되었고 최근에 있는 2024 년 우리 성 농작물 다수확 품종 경연대회에서 연변의 안명호재배업유 한회사가 육성한 '안육두 23'이 3 등상을 수상, 콩 품종 경연조 1 위를 차지했다. 2024 년 우리 성 농작물 다수확 품종 경연에 참가한 농작물 품종 전간 표현에 대한 성 전문가팀의 종합적 평가에서

'안육두 23'은 다수확 등 많은 우세를 가지고 있어 평가에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

또한 내용물 무전현에서 있는 국가 감자육종연합관동과 신품종 식미 평가회에서 연변농업과학원에서 출품한 감자 품종 '연서(延薯) 13 호'가 전문가 심사위원 평가와 대중 심사위원 품평회에서 모두 1 위를 차지해 연변의 감자 육종 방면의 실력을 과시했으며 연변 감자산업 시장을 한층 더 확장하는 데 튼튼한 기초를 닦아 놓았다.

/ 연변뉴스넷

풍년의 거리



도남시에서는 지리적 우세를 발휘해 량곡집중구매매장을 형성하였다. 11월이래 도남시 각지의 농민들은 날씨가 좋은 시기를 리용하여 수확한 농작물을 말리우고 다듬질해 입고시키도록 확보하였다. 사진은 교류향 창성촌 거리 풍경이다.

연길시 민속식품 해외 진출 활발

길림성 연길공항경제개발구 한 민속음식생산기지로부터 쌀, 밀가루, 기름, 닭알 등 현지의 초급 농산품들이 해외로 수출되는 정교한 식품으로 변신되어 전통 민속식품의 현대적 매력과 상업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기지의 제품은 이미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캐나다, 조선 등을 포함한 10 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으며 해외 중국인 공동체에서 광범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중 월병은 연간 약 30 개의 컨테이너 규모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제품이다.

기지는 현지 합작사와 사전에 구매 협의를 체결하여 농민들의 알곡 판로를 개척하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원재료 창고에는 연변 쌀, 팥 등 현지

에서 구매한 초급 농산품들이 대량으로 저장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연길시농업농촌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농민들의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농산품 가공기업의 원자재 구매 사업을 지원했으며 농산물 가공 정책을 홍보하고 기업의 요구를 경청하여 근심을 해소해주었다. 이미 이 생산기지를 위해 600 여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해주고 성급 민속식품 현대농업산업단지를 건설하여 민속식품 산업사슬의 확장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농민 소득 증대를 효과적으로 이끌었다.

연길시에는 현재 량식, 김치, 인삼 가공 등을 포함한 근 30 개의 식품 공업 기지가 있는데 상당한 규모의 수출산업집구를 형성하고 있다.

/ 중앙 TV 방송